

都市속의 어항, 多大浦港

沈水피해 解決 어민 저항 佛拭

林 漢 洙 <東和建設(株) 現場所長>

다 대포항은 부산직할시 사하구 다대동에 자리잡고 있는 수산청 제1종 어항이다.

다대포항은 항입구에 있는 물운대(沒雲臺)에서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장군이 왜적을 맞아 격전을 치른 곳으로 유명하며, 특히 넓게 펼쳐진 대대포해수욕장은 여름철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올해 273m를 시공 어민반대도 철회

지난 1971년에 수산청 제1종 어항으로 지정된 다대포항은 지역적으로 대항구도시 부산에 위치한 관계상 많은 어획물의 대량 소비처가 인근에 산재해 있어 발전 가능성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

다대포항은 어선의 안전정박과 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70~71년도에 물양장이 철

시판(Steel Sheet Pile) 구조로 시공되었으며, 이 시설이 최근까지 이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철시판의 부식 및 시설 노후로 해마다 늘어나는 어선 척수와 어획량을 신속 안전하게 집안 처리할 시설이 부족한 까닭에 시설 보강이 시급하여 수산청 계획으로 91년도까지 보강 352m를 시공한데 이어서 금년도에 273m를 시공하고 있다.

국내 어느 어항에 비해도 적지않은 다대포항이지만 71년 수산청 제1종어항으로 지정된 이래 거의 종합적인 어항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마다 늘어나는 어선 척수와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른 것이다.

특히 출어선이 귀항하여 어획물을 양륙하려 할 때 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없는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어민의 수나 어선의 숫자가 비교적 적을 때는 별다른 어려움없이 이를 소화해 낼 수 있었지만

어선이 600척 이상이나 되는 포화상태에서는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선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방법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다.

다소 늦기는 했지만 89년에 다대포항 개발을 위한 기본조사와 시설 정비 계획이 마련되어서 38억7,800만원의 예산으로 기존 물양장 보수 550m, 신설물양장 건설 390m 그리고 6만㎡를 준설하게 되었다.

이 공사가 끝나면 항내 수면적이 18만㎡, 정온수면적이 15만㎡가 되어 10톤급 이상의 어선 280척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어항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이같은 수용능력 확충만이 접안시설 부족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불식하고 다대포항의 장기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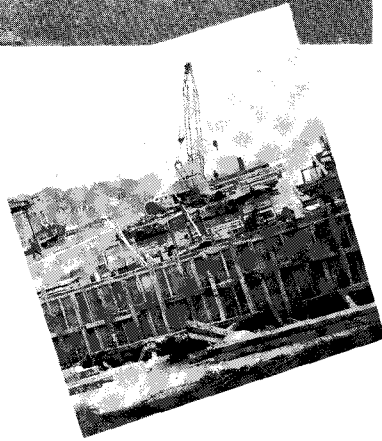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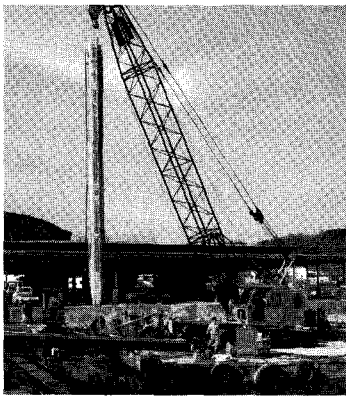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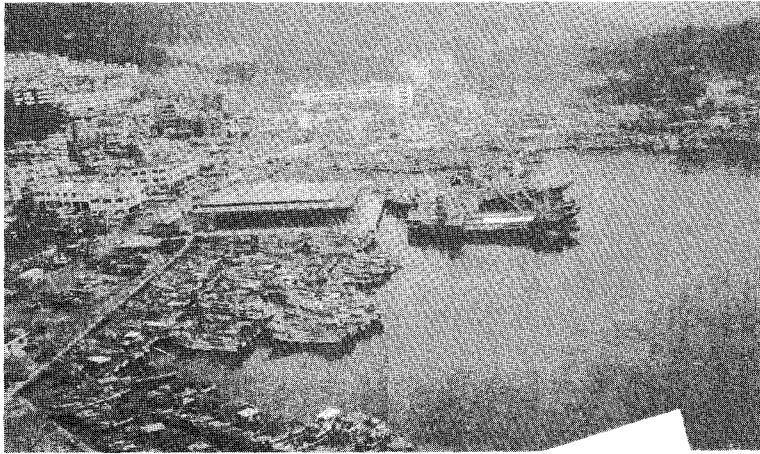
90년도 처음 공사를 시작할 때에는 항내에서 공사를 하는 범위만큼 어선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피해주어야 하는데 마땅한 대피장소가 없어서 어민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일부 반대 어민의 큰 저항도 받았다.

그러나 수산청 관계자와 끊임없이 지역 어민들을 설득한 결과 그들은

이 공사가 완공되면 궁극적 수혜자는 바로 어민들 자신이란 것을 이해하고 협조하게 되었다.

물양장 보강공사로 불편 참아준 어민에게 감사

이러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데는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많았다. 그 가운데는 지역 주민의 숙원사업의 하나인 다대포항 수협 어판장 서쪽에 있는 배수암거의 침하로 통수 단면적이 아주 적어져서 우기시 폭



우가 내리면 상류의 우수(雨水)를 배수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역류되어 도로를 비롯하여 어민주택까지 침수되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문제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 줌으로써 민원을 해결해 보자는 데 있었다.

그래서 수산청 감독관의 건의로 기존의 침하된 배수암거를 철거하는 한편 어촌계를 중심으로 어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건물을 철거하고 시공자인 동화건설(주)이 간조를 이용한 철야작업으로 암거공사를 무사히 마쳐 폭우에도 시원

스럽게 배수 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협조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91년도의 보강공사를 잘 마칠 수 있었으며 잔여의 계속공사에도 잠시의 불편은 참겠다며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받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도 접안시설이 부족해 어획물 양륙과 어선의 안전정박이 불편할 뿐아니

라 기존 물양장의 보강공사로 더욱 불편이 많아 곤란을 겪으면서도 잘 참아주고 협조해준 어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옛날부터 다대포항은 왜구들을 막기위한 군사적·전략적·산업적 요충지였던 만큼 우리나라 제2의 대도시, 제1의 항도 부산의 힘찬 현대화 작업과 동시에 수려한 자연경관의 모습을 간직한 채 만선의 깃발을 휘날리며 어선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정박할 수 있는 도시속의 어항이 될 것을 그려본다. ㉔